

A6. ★이성부, 「봄」

기다리지 않아도 오고
 기다림마저 잃었을 때에도 너는 온다.
 어디 빨밭 구석이거나
 썩은 물 웅덩이 같은 데를 기웃거리다가
 한눈 좀 팔고 싸움도 한 판 하고,
 지쳐 나자빠져 있다가
 다급한 사연 듣고 달려간 바람이
 흔들여 깨우면
 눈 비비며 너는 더디게 온다.
 더디게 더디게 마침내 올 것이 온다.
 너를 보면 눈부서
 일어나 맞이할 수가 없다.
 입을 열어 외치지만 소리는 굳어
 나는 아무것도 미리 알릴 수가 없다.
 가까스로 두 팔을 벌려 껴안아 보는
 너, 먼 데서 이기고 돌아온 사람아.

1. <보기1, 2>를 참조하여 위 시를 해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1〉 이성부의 시는 흔히 참여시로 분류된다. 이는 이성부의 시에는 왜곡된 현실에 대한 분노와 그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민중들에 대한 한없는 사랑의 감정이 공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의 시 속에는 현실의 왜곡된 모습과 기나긴 역사의 과정 속에서 지배 세력들에게 짓밟히고 고통 당한 사람들의 삶을 껴안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다.

곧 타인의 삶을 억압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역사적 현실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의 시는 거기서 머물지 않고 억압과 소외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민중들의 모습에 대한 한없는 애정을 담고 있다.

〈보기2〉 ‘봄’이 상징하는 자유와 평화의 새 시대를 갈망하고 있다. 아무리 길고 또 끝날 것 같지 않던 겨울도 결국은 지나가고 봄이 오는 것처럼, 시인은 유신 독재의 시대도 언젠가 반드시 끝날 것이라는 희망을 품어 보는 것이다. ‘기다리지 않아도 오고 기다림마저 잃었을 때에도’ 오는 봄처럼 그 시대는 꼭 올 것이라고 말이다.

1961년, 아직 군복을 입고서 권력을 잡았을 때부터 이 시가 씌어진 1974년까지, 13년이라는 세월 동안 5·16 군사 쿠데타 세력의 독재 밑에서 살아가야 했으니 ‘기다림마저 잃었을 때’라는 말에 담긴 애타는 기다림을 짐작할 수도 있겠다. 그러고도 5년간을 더 기다려야 했고, 또 다시 전두환, 노태우 군사 독재가 이어졌지만, 도대체 어디서 무얼 하길래 봄은 이리도 더디게 오는지

- ① 〈보기2〉를 통하여 볼 때 ‘봄’은 민주화가 이루어질 시기를 말할 수 있겠군.
- ② 〈보기1〉을 통하여 볼 때 ‘두 팔을 벌려 안아본다’는 것은 대상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드러내는 것일 수 있겠어.
- ③ 〈보기2〉를 통하여 볼 때 ‘더디게’의 원인은 오랜 시절의 독재와 군사정권 집권 때문이고, 이러한 표현은 민주화를 기다리는 화자의 애타는 마음을 드러내는 것 같아.
- ④ 〈보기2〉를 통하여 볼 때 ‘바람’은 독재 정권과 군사정권 등의 민중 억압을 보여주는 시어이겠군.
- ⑤ 〈보기2〉를 통해 볼 때 ‘빨밭구석’과 ‘썩은 물 웅덩이’는 민주화를 방해하는 독재 세력일 수도 있겠어.

A7. 신동엽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사월(四月)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동학년(東學年) 곰나루의, 그 아우성만 살고

껍데기는 가라.

그리하여, 다시

껍데기는 가라.

이 곳에선, 두 가슴과 그 곳까지 내는

아사달 아사녀가

중립(中立)의 초례청 앞에 서서

부끄럼 빛내며

맞절할지니

껍데기는 가라.

한라에서 백두까지

향그러운 흙 가슴만 남고.

그, 모오든 쇠붙이는 가라.

1. 위 시의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단호한 어조로 지향하는 바를 의지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 ② 대상의 속성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진리를 드러내고 있다.
- ③ 서술어의 제한적 사용을 통해 여운을 느끼게 한다.
- ④ 관조적 어조를 사용하여 객관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 ⑤ 대상을 매개로 과거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를 환기하고 있다.

2. <보기>를 바탕으로 위 시를 해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1) 이 시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조사와 어미, 그리고 한자어 병기 표기이다. 어미는 어조를 드러내는 효과를 보이며, 조사는 강조의 기능을 한다. 한자어 병기 표기 또한 해당 시어에 대한 강조의 효과를 드러낼 때 사용되었다.

(2) 4.19 혁명과 동학 농민 운동 역시 불순한 세력들이 존재하였다. 독재 권력, 순수한 민족에게 총 뿌리를 겨누는 자들, 권력에 편승하는 자들이 바로 그러하다.

(3) 신동엽은 정치 이데올로기에 대한 반감을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 ① 보조사를 사용하여 가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하고 있다.
- ② '알맹이'는 한자어로 병기되어 있는 대상들을 통해 형상화되고 있다.
- ③ '사월도'에서 보조사에 주목한다면 사월의 껍데기 역시 존재하며 화자는 그것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 ④ '사월'의 '알맹이'는 '동학년'의 아우성과 조응하여 권력에 오염되지 않는 순수한 정신을 의미한다.
- ⑤ '중립'이라는 단어를 통해 이 시의 화자가 자유민주주의에 대해 강력하게 저항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8. 김수영, 「파발가에서」

삶은 계란의 껍질이

벗겨지듯

묵은 사랑이

벗겨질 때

붉은 파발의 푸른 새싹을 보아라.

얻는다는 것은 곧 잃는 것이다.

먼지 많은 석경(石鏡) 너머로

너의 그림자가

움직이듯

묵은 사랑이

움직일 때

붉은 파발의 푸른 새싹을 보아라.

얻는다는 것은 곧 잃는 것이다.

새벽에 준 조로의 물이

대낮이 지나도록 마르지 않고

젖어 있듯이

묵은 사랑이

뉘우치는 마음의 한복판에

젖어 있을 때

붉은 파발의 푸른 새싹을 보아라.

얻는다는 것은 곧 잃는 것이다.

- 1. '삶은 계란의 껍질이 벗겨지는 것'은 묵은 사랑이 더 심해지는 부정적 상황을 의미한다.(o,x)
- 2. '너의 그림자'는 '묵은 사랑'과 그 의미가 유사하다.(o,x)
- 3. 동일한 구절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o,x)
- 4. 색채 이미지의 대비를 통해 생생함을 부여하고 있다.(O,X)
- 5. 역설적 표현을 통해 시적 긴장감을 드러내고 있다.(O,X)

A9. 김남조, 「겨울 바다」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겨울 바다에 가 보았지.

미지(未知)의 새,
보고 싶던 새들은 죽고 없었네.

그대 생각을 했던만도
매운 해풍(海風)에
그 진실마저 눈물져 얼어 버리고
허무의
불
물 이랑 위에 불 붙어 있었네.

나를 가르치는 건
언제나
시간…….
끄덕이며 끄덕이며 겨울 바다에 섰었네.

남은 날은
적지만
기도를 끝낸 다음
더욱 뜨거운 기도의 문이 열리는
그런 영혼을 갖게 하소서.

겨울 바다에 가 보았지
인고(忍苦)의 물이
수심(水深) 속에 기둥을 이루고 있었네.
-김남조, 〈겨울 바다〉

(나) 우리가 물이 되어 만난다면

가문 어느 집에선들 좋아하지 않으랴
우리가 키 큰 나무와 함께 서서
우르르 우르르 비 오는 소리로 흐른다면

흐르고 흘러서 저물녘엔
저 혼자 깊어지는 강물에 누워
죽은 나무 뿌리를 적시기도 한다면
아아, 아직 처녀인
부끄러운 바다에 닿는다면

그러나 지금 우리는
불로 만나려 한다

벌써 숲이 된 뼈 하나가
세상에 불타는 것들을 쓰다듬고 있나니

만 리 밖에서 기다리는 그대여
저 불 지난 뒤에
흐르는 물로 만나자

푸시시 푸시시 불 꺼지는 소리로 말하면서
올 때는 인적 그친
넓고 깨끗한 하늘로 오라
-강은교, 〈우리가 물이 되어〉

1.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경향의 시에서 생명의 문제는 역설적으로 죽음에 대한 태도를 통해 드러난다. 실존에 대한 자각은 인간의 유한성을 상징하는 죽음을 인식하는 데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삶에 대한 이상이나 소망을 상실하고 허무와 절망을 체험한 시적 화자는 내면적 갈등을 거듭하며 죽음을 인식하게 되고, 생사가 공존하는 공간 속에서 처절한 고독감을 느낀다. 그러나 화자에게 번민을 일으키는 이러한 상징적 공간은 죽음에 인접해 있는 만큼 삶에 대한 애착을 보다 강하게 만들기도 한다. 생명에 대한 욕망과 삶에 대한 깨달음은 극한상황에서 벗어나 다시금 질서를 되찾고자 하는 극복의지를 대두시키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화자는 때때로 인간의 유한성과 대조되는 초월적 존재를 떠올리며 그에 다다르기 위한 성숙의 시간을 갖는다.

- ① 모든 '새'는 '매운 해풍'과 더불어 진실을 열게 한다는 점에서 부정적 의미를 지닌 시어이다.
- ② '물이랑 위에 붙어 있는 '불'은 화자의 내적 갈등이 심상을 통해 표면화된 구절이다.
- ③ '끄덕이며 겨울 바다에 섰었네.'에서 삶에 대한 화자의 성찰이 드러나며 끄덕이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성숙의 시간을 의미한다.
- ④ '기도를 끝낸 다음 더욱 뜨거운 기도의 문이 열리는 것'은 초월적 존재로의 지향임과 동시에 삶에 대한 애착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구절이다.
- ⑤ '인고의 물'이 기둥을 이루는 것은 극한 상황에서 벗어나 이루고 하는 화자의 내면의 내적 질서가 형상화된 모습이다.

2.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죽음'은 때때로 시적자아가 새로운 정체성을 탐색하는 과정과 조응한다. 죽음이 곧 재생을 예비하는 과정으로 기능하는 것이다. 이러한 통과제의적 죽음은 대비되는 성질을 가진 두 이미지의 대립을 통해 형상화될 수 있다. 자아가 욕망하는 대상 혹은 바람직한 이상향을 가리키는 중심 이미지가 작품 전체를 아우르고 있고, 그것에 도달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가 상반되는 이미지로 등장하는 식이다. 자기정화의 과정을 충실히 겪은 후에야 새로운 경지에 다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죽음의 이미지는 시적자아가 성취하는 새로운 생명력의 이미지만큼이나 중요한 가치를 지니며, 따라서 두 이미지의 대립은 그 성질의 상충과는 달리 단순한 긍정-부정의 관계로 상정될 수 없다.

- ① (가)에서 '보고 싶은 새'가 죽어 있는 상태는, (나)에서 현재 '죽은 나무 뿌리'와 유사한 상태이며, 이는 '우리가 몰로 만날 수 없는 상황과도 유사하군.
- ② (나)에서 '저 불 지난 뒤에' 만나자는 것은 '불'이 지나가야 기다리는 세계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군.
- ③ (가)에서 '허무의 불'이 물이랑 위에서 꺼지지 않았던 것은 통과 제의적 죽음을 거부하려는 화자의 의지로 보아야겠군.
- ④ (가), (나)에서 모두 '물'과 '불'이 심상의 대비가 이루어졌지만 이 '불'은 모두 특정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필요한 과정일 수 있겠군.
- ⑤ (가)에 '인고의 물'이 수심 속에 기둥을 이루는 것과 (나)에 '물'들이 인적 그친 넓고 깨끗한 하늘로 모이는 것은 모두 자기정화의 과정 이후에 도달하거나 혹은 도달해야 할 경지에 해당하겠군.

A10. 이가림, 「석류」

(가) 언제부터
이 ㉠잉겔볼 같은 그리울이
텅 빈 가슴속에 이글거리기 시작했을까

지난여름 내내 앓던 몸살
더 이상 견딜 수 없구나
영혼의 가마솥에 들끓던 사랑의 힘
㉡감감한 골방 안에
가둘 수 없구나

나 혼자 부둥켜안고
뒹굴고 또 뒹굴어도
자꾸만 ㉢익어 가는 어둠을
이젠 알알이 쏟아 놓아야 하리

무한히 새파란 심연의 하늘이 두려워
나는 땅을 향해 고개 숙인다
온몸을 휩싸고 도는
어지러운 층만 이기지 못해
나 스스로 ㉣껍질을 부순다

아아, 사랑하는 이여
지구가 쪼개지는 소리보다
더 아프게
내가 깨뜨리는 이 ㉤홍보석의 슬픔을
그대의 뜰에
받아 주소서

-이가림, <석류>

- (나) 세상의 열매들은 왜 모두
둥글어야 하는가.
가시나무도 향기로운 그의 탕자만은 둥글다.

땀으로 땅으로 파고드는 뿌리는
날카롭지만
하늘로 하늘로 뻗어가는 가지는
뾰족하지만
스스로 익어 떨어질 줄 아는 열매는
모가 나지 않는다.

덥썩
한 입에 물어 깨무는
탐스러운 한 알의 능금
먹는 자의 이빨은 예리하지만
먹히는 능금은 부드럽다

그대는 아는가,
모든 생성하는 존재는 둥글다는 것을
스스로 먹힐 줄 아는 열매는

모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오세영, <열매>

A6 : 4

A7 : 1, 5

A8 : X, O, O, O, O

A9 : 1, 3

A10 : 5, 2

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비되는 시어를 통해 과거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대상의 외양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 ③ 설의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절망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의인화된 화자를 통해 성찰적 삶의 자세를 보이고 있다.
- ⑤ 자연물의 속성을 통해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2. (가)의 ㉠~㉥에 대한 감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화자는 잔잔하게 타고 있는 '잉겔볼'처럼 언젠가 자신의 그리움이 사그라질 것이라고 믿고 있어.
- ② ㉡: 화자의 터질 것 같은 사랑의 감정은 익어가는 '석류알'과도 같아서 꿀방 같은 껍질 속에 가둘 수 없는 것이겠군.
- ③ ㉢: 화자는 사랑의 아픔에 몸부림치던 끝에 결국 죽음을 맞이하고 있어.
- ④ ㉣: 화자는 사랑하는 '그대'를 위해 스스로 자신의 사랑을 접고 있군.
- ⑤ ㉤: 사랑에 실패한 화자의 슬픔과 분노가 붉게 익은 '석류'에 비유되고 있구나.